

국어교육에서 무의미시의 문제*

김남희**

< 차 례 >

1. 문제제기—국어교육에서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
2. 무의미시의 의미
3. 환상 행위로서의 무의미시의 의미화 방식
4. 결론—무의미시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1. 문제제기—국어교육에서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

사고력의 신장을 국어교육의 요체로 보는 관점은 국어교육 논의에서 이제 더 이상 주변적 관점이 아니다.¹⁾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언어활동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사고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나아가 언어활동의 과정과 결과가 인간의 사고력 신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 국어교육의 중요한 문제로 널리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에서 사고력을 논할 때 특히 논의의 전면에 등장하는 범주는 이른바 ‘언어적 사고(verbal thought)’의 범주이다. 비고츠키에 의하면 의미는 사고와 언어의 철저한 혼합물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의미 현상인

* 이 논문은 국어교육학회 제39회 정기 학술발표대회(2008. 4. 26, 대구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진지한 토론을 통해 논의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부산대 문선영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다음의 저서의 논의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지 아니면 사고 현상인지 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의미 없는 단어는 공허한 소리일 뿐이고, 일반화와 개념과 같은 사고 행위는 물과 같아서 언어 형식과 같은 그릇이 없이는 그 형태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의미는 사고가 언어로 구현될 때만이 사고 현상이며, 언어가 사고와 연계되고 사고에 의해 밝혀질 때만이 언어 현상이 된다. 의미는 언어적 사고 또는 의미 있는 언어 현상인 것이다.²⁾

이처럼 언어적 사고의 범주를 의미 현상과 동궤에 놓고 이해할 때, 의미를 거부하는 언어 행위는 국어교육의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문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후대 시인들의 창작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무의미시가 그 대표적 경우에 해당한다.

「의미와 무의미」라는 글을 통해 무의미시론을 개진한 김춘수는 자신의 시에서도 관념 전달이나 소통을 전제로 사용되는 언어, 즉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언어를 시에서 배제하고 의미를 거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는 시라는 언어 형식으로 외화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의미와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구축물인 무의미시³⁾는 언어 현상이면서도 사고, 혹은 의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언어적 사고’의 범주에서 고려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기에 국어교육을 위한 언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 등이 문제로 떠오른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에서 출발한다.

또한 대개 문학학의 분야에서 관심과 조명을 받고 가치를 인정 받은 작품들이 문학교육의 제재로 고려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무의미시 계열의 작품들만큼 문학 연구에서의 비중⁴⁾과 문학 교육에서의 비중⁵⁾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드물다는 점도 이 논문

2) L.S. Vygotsky, 신현정 역(1985), 『사고와 언어』, 성원사, p.120.

3) 김춘수(1982), 「의미와 무의미」, 『김춘수전집2』, 문장사, pp.381-391.

4) 문학 연구의 영역에서 김춘수 관련 연구가 매년 쏟아져 나오고, 그 중 특히 무의미시 및 무의미시론을 대상으로 한 논의가 김춘수 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라영(2004), 「김춘수의 무의미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p.3. 참조.

5)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뿐 아니라, 심화 선택 과

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물론 문학 작품의 교재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학습자 변인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학습 독자의 수준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난해하다는 점이 무의미시 작품들을 교육의 장면에서 배제하게 된 기본적 동인이겠으나, 그 난해함의 실체가 교육적으로 규명된 바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난해함의 이면에 존재할 수도 있는 교육적 의미는 지금까지 문학교육 논의에서조차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의미시로부터 촉발되는 의미와 사고의 문제를 중심으로 무의미시가 갖는 국어교육적·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 보고자 한다.

2. 무의미시의 의미

(1) 무의미시의 의미에 대한 제견해

김춘수의 시 가운데 시집 『타령조·기타』(1969) 이후 『라틴점묘 기타』(1988) 이전까지의 시들을 이른바 ‘무의미시’라고 부른다. 무의미시에 대한 문학계의 일반적인 판단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무의미시는 시에서 의미를 소거한 시라는 것이다.⁶⁾ 그러나 의미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무의미시를 문자 그대로의 무의미, 즉 의미 없는 언어로 받아들이는

목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도 제재로 선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 실제로 현행 교육과정에 의거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경우 1종의 교과서에서만 무의미시 계열의 작품(『이중섭2』)을 수록하고 있었으며, 그 경우에도 문학적 수용의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문학과 예술 문화’ 단원에서 시와 예술의 영향 관계를 소재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을 뿐이다.

조남현 외(2003), 『문학(하)』,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321.

6) 권혁웅(2005), 「무의미시는 무의미한 시가 아니다」, 『문예중앙』 2005 여름호, p.272.

견해와 의미 있는 언어로 받아들이는 견해로 문학계의 입장이 대별된다. 후자, 즉 무의미의 의미를 존중하는 경우에도 의미의 작용역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따라 지시 대상의 의미를 찾아 해석하려는 입장과, 확대된 의미, 다른 차원의 의미를 무의미시가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⁷⁾

첫 번째 입장은 무의미시가 ‘의미 없는 언어의 조합’이며, ‘사회적 인격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극단적 비판으로까지 나타난다.⁸⁾ 이처럼 지칭적 대상의 부재 자체가 의미 없는 언어의 조합을 결과한다는 판단은 외적 현실을 외면하는 시, 즉 무의미시에 나타나는 현실 도피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가치 평가와 관련 있다.⁹⁾ 그러나 실제로 언어적 표현의 대상이 되는 인간의 정신 작용은 현실 세계의 대상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세계관과 인간관, 특히 문학관에 따라서는 외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을 형상화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본연적 내면, 심리 내용의 특수한 국면을 언어로 드러내는 텍스트에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대체로 이와 같은 무의미시 비판의 논의들은 범박하게 말하자면, 문학관의 차이가 텍스트에 대한 가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논의들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은 무의미시의 언어 역시 일반적인 시 장르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은유나 상징의 차원에서 ‘해석’되고 본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실 무의미시에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대부분의 무의미시 연구가 취하는 방식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김춘수 본인의

7) 이러한 견해들의 기저에는 ‘무의미(nonsense)’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전제되어 있다. 일반적인 논의에서 무의미는 ‘의미(sense)’의 반대 혹은 부정의 경우로 다루어진다. 또 다른 개념에는 무의미가 ‘뜻(meaning)’을 지니며, 오히려 위트와 재능의 산물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철학적 논의에서는 무의미를 의미의 없음이라고 간주하는 대신, 무의미가 의미의 다양한 생산을 내포하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라영(2004), 「문학적 무의미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학』 86호, 한국어문학회.

8) 대표적인 논의로는 장석주(2005), 「언론의 한계와 파탄」, 『풍경의 탄생』, 인디북.

9) 대체로 이러한 논의는 김수영과 김춘수의 대비 연구의 형태로 구체화되는 경향이 적지 않다.

언급에 의해 지지되기도 한다.

무의미란 말이 의미론적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는 듯도 하지만, 나의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존재론적 차원이나 시학적 차원을 항상 나는 염두에 두고 있다.¹⁰⁾

김춘수 역시 자신의 무의미시를 의미 배제의 시라고 말하는 대신, 존재론적·시학적 차원에서 다른 차원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김춘수가 말하는 존재론적 차원과 시학적 차원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나, 이때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의미는 현실 지시향을 참조하여 우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미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많은 논의들은 무의미시에 나타난 언어들이 실제로 지시하는 바를 일대일의 차원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일부 비평가들은 기존의 많은 논자들이 무의미시와 통상적인 해석 활동 사이에 칸막이를 쳤다고 비판하면서, 기존의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텍스트에 취해진 언어들의 본의를 찾는 해석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¹¹⁾ 일종의 관습적 시 독법을 무의미시에도 적용하는 셈인데, 물론 이와 같은 전문적 해석이 김춘수 시의 의미론을 구축하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는 바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실제로 대부분의 무의미시는 의식적으로 일반적 시 독법에 저항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무의미시의 의미 문제를 무의미시답게 다루는 방식이라고

10) 김춘수(1982), 『처음 이후』, 민음사, p.108.

11) 최근 젊은 비평가 중 김춘수 시 해독에 발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는 권혁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령 그는 “마당에는 덕석이 깔려 있고/ 감나무가 앞을 드리우고 있더라./ 空中을/ 풍뎅이가 한 마리 날고 있더라./ 해가 지고 언덕이 있고/ 구름이 있고/ 피라미 새끼들이/ 南江上流를 내려오고 있더라.”(「眼科에서」)라는 시를 ‘비문증(飛蚊症)을 앓는 이의 시선을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풍경’이라고 독해하는가 하면, 시 「南天」의 “南天과 南天 사이 여름이 와서/ 봄여가 알을 낳다.”는 구절을 “남천 잎 사이로 흰 꽃이 피었다.”라는 서경의 변안이라고 해석한다.

권혁웅, 앞의 글 참조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적 경향이 문학 교육의 내용으로 독점화된다면, 무의미시가 갖는 난해성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그 결과 무의미시는 점점 더 학습 독자에 의해 외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는 달리 무의미시의 의미를 해석 가능한 메시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독자에게 일으키는 모종의 효과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논의들이 있다. 무의미시가 ‘실존의 현기’를 느끼게 한다거나¹²⁾ 독자로 하여금 ‘자명한 세계에서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게 한다거나¹³⁾ ‘존재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시’¹⁴⁾라고 보는 논의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 논의들은 기본적으로 무의미시가 언어의 지칭적 국면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특수한 시적 효과가 발생함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대체로 이들의 논의는 기존의 독법으로 무의미시를 읽을 때 발생하는 한계와 머뭇거림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대상을 소거한 무의미시의 언어가 상상적 대상을 창출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일상적 의미를 넘어 존재하는 울림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의미시의 독법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개별 논의에 따라 무의미시의 의미에 해당하는 일상적 의미 너머에 존재하는 울림의 실체에 대한 의미 부여는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김춘수가 추구하는 절대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무의미시가 ‘의식에 비친 이미지들을 색깔이나 선 대신에 언어로 그림’¹⁵⁾을 그린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는 논의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논의에 힘입어 무의미시는 ‘작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한국 현대시의 흐름과 논의를 독자 중심으로 바꿔 놓는 가교가 되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한 후배 시인에 의하면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독자들이 엿

12) 이승훈(2000),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pp.229-231.

13) 유종호(2005), 「이데아의 음악과 이미지의 음악」, 『현대문학』 601호, 현대문학사.

14) 김현(1993),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15) 구모룡(2006), 「한 완전주의자의 시적 모험 - 김춘수론」, 『시의 옹호』, 천년의시작, p.173.

매어 있는 기호의 일상적·관습적 족쇄를 풀어헤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8~90년대 시인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시적 실험의 토대가 김춘수의 무의미시 단계에서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시 수용의 차원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 생산의 차원에 작용하는 무의미시의 자극을 긍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은 그 자체로 무의미시의 교육적 가치를 방증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의미시가 독자에게 야기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무의미시의 의미를 설명하는, 세 번째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의미시가 그려내고 있는 일상적 의미 너머의 존재론적 체험, 혹은 그로부터 야기되는 자유의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무의미시의 텍스트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환상시’ 논의들이 설득력 있는 매개를 제공해 준다.¹⁷⁾

사실 시뿐 아니라 모든 문학은 환상의 속성을 갖는다. 나아가 모든 예술의 본질은 환상의 창조와 관련이 있다.¹⁸⁾ 그러나 환상에서 무엇보다도 이미지가 기본 단위가 된다는 점, 시에서 독자의 합리화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환상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수한 텍스트 조건으로서의 환상이라는 매개와 무의미시의 친연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무의미시의 의미 조건으로서의 환상

‘환상’은 독일어로는 ‘Phantasie’, 불어로는 ‘fantasm’, 영어로는 ‘fantasy’라고 쓰이며, 공히 라틴어 ‘phantasticus’에서 나온 말로, ‘나타나 보이게 하

16) 강수(2001), 「창조적인 시 읽기의 즐거움」, 『현대시학』 383호, 현대시학사 참조.

17) 윤지영(2001), 「‘환상적인 시’와 ‘환상시’의 가능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이창민(2008), 『현대시와 판타지』, 고려대학교출판부 등.

18) Susanne Langer, 박용숙 역(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p.44.

다', '착각을 주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다',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독일어의 경우는 상상 활동, 즉 상상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불어와 영어의 경우는 상상의 소산, 산물에 초점을 맞춘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¹⁹⁾ 어느 쪽이 되었든 환상은 상상을 통해 이 세계의 요소들을 전도시키는 것, 낯설고 친숙하지 않으며 그리고 명백하게 '새롭고' 절대적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산출하기 위해 그 구성 자질들을 새로운 관계로 재결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²⁰⁾

특히 문학에서 환상성이라는 주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문제, 즉 말해질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문제를 전경화한다. 실제로 로즈메리 잭슨은 양식으로서의 환상이 갖는 중요한 조건으로 '비-의미화'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진실'이나 '리얼리티'에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무능력 때문에 현대적 환상은 언어학적 체계로서의 고유한 관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문학이 되었다고 보았다.²¹⁾ '리얼리티'와 '의미'를 확립하고자 하는 태도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하게 노정시킨다는 점에서 환상이 제기하는 문제는 무의미시의 그것과 정확히 겹쳐 있다.

문학에서 무의미의 추구는 사실 기호와 의미의 간극에 대한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추구되는 일종의 문학적 행위로, 김춘수로 대표되는 한국적 상황에서만 발생한 경향은 아니다. 역사적 아방가르드의 대표적 흐름인 다다 역시 무의미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의미의 창조를 지향하였던 바, 의미의 파괴와 무의미의 추구를 지향한 다다 예술 또한 새로운 의미를 얻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의미 추구의 좌절을 겪은 후 관습과는 다른 의미를 지향하고, '리얼리티' 차원의 세계 재현을 지향

19) 이로 인해 수잔 아이삭은 산물로서의 환상을 fantasy, 행위로서의 환상을 phantasy로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임진수(2005),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및 최기숙(2007),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참조

20) Rosemary Jackson, 서강여성문화회 옮김(2001),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p.18.

21) Rosemary Jackson, 위의 책, p.54.

하려는 다다의 노력이나 김춘수류의 무의미시는 모두 세계를 기존의 시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시도²²⁾에 다름아니며, 그와 같은 노력의 기저에 환상의 추구가 놓여 있다. 보이지 않고 말해질 수 없는 것을 시각화하고 언어화하려는 노력은 환상의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²³⁾

그런데 환상문학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시도한 토도로프의 경우에는 시에서 환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²⁴⁾ 토도로프가 환상을 기본적으로 서사 문학의 속성으로 바라보았던 관점의 기저에 있는 논리는 역설적이게도 무의미시의 의미 조건으로서의 환상의 속성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 준다. 토도로프가 기본적으로 환상성이 알레고리나 시와 나란히 자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환상성이 알레고리의 개념화와 시의 은유적 구조 둘 다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환상성은 비-개념적인 non-conceptual 혹은 개념-이전의 pre-conceptual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환상의 전복적인 힘의 일부는 알레고리와 은유에 대한 저항에 있다는 것이 토도로프의 관점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시 읽기의 관습인 은유적 읽기는 환상 문학에서 불가능하기에, 환상 문학은 은유적 읽기가 아닌 표상 자체에 주목하는 읽기를 추동하는 속성이 있다.

이 지점에서 개념화와 지시적 의미를 거부하는 무의미시의 환상성이 어떻게 접근될 수 있을지가 역으로 해명될 수 있다. 토도로프의 논의는 전형적인 시의 관습적 구조인 은유를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우리의 관심사인 무의미시는 은유가 아니라 환상을 내적 조건으로 갖는 텍스트이기에, 토도로프의 환상론과 배치되지 않을 뿐더러, 환상 문학에 접근하는 읽기의 방식에 관한 토도로프의 통찰은 무의미시의 읽기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토도로프는 환상을 작품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내포독자의 반응을 기준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서 있는 바,²⁵⁾ 이

22) 김길웅(2002), 「저항과 변혁의 문화 운동, 다다 : ‘의미’와 ‘무의미’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2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3) Rosemary Jackson, 앞의 책, p.69.

24) Tzvetan Todorov, 이기우 역(2005), 『덧없는 행복/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참조.

는 앞서 무의미시의 새로운 의미에 접근하는 독자 중심의 읽기의 구체적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읽기를 통해 접근되는 환상이라는 텍스트 조건이 어떤 지점에서 텍스트의 새로운 의미에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환상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논의가 이미 우리에게 적지 않은 통찰을 제공해 주었다. 정신분석학의 차원에서 환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체가 등장하는 상상적 각본’²⁶⁾에 다름아니다. 현대시의 환상성을 밝히려는 대부분의 논의 역시 이러한 통찰에 입각하고 있기에, 환상으로 말하기는 욕망의 은근한 어법²⁷⁾으로 이해되어 왔다. 사실 환상과 욕망의 관계는 프로이트 이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왔는데, Wunschphantasie(욕망-환상)이라는 복합명사까지 만들어 사용할 정도로 프로이트에게 있어 욕망과 환상은 한 단어나 다름없다. 욕망과 환상은 선후 내지 종속관계로 보기보다는 서로의 존재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²⁸⁾ 그러므로 환상을 무의미시의 의미 조건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현 주체의 욕망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환상과 욕망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의미시가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3. 환상 행위로서의 무의미시의 의미화 방식

프로이트에 의하면 문학 작품을 창조하는 태도는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기성의 소재를 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혹은 이를 각각 모방 충동과 환상 충

25) 위의 책, p.131.

26) 임진수, 앞의 책, p.235.

27) 문선영(2003), 『현대시와 문화의식』, 청동거울, p.309.

28) 임진수, 앞의 책, p.237.

동으로 개념화하여 제시하였다. 모방 충동이 다른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찰진감과 함께 사건·사람·상황·대상을 모사하려는 욕구인데 반해, 환상 충동은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뜨리는 심상 등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리얼리티를 바꾸려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²⁹⁾ 환상이란 사실적이고 정상적인 것들이 갖는 제약에 대한 의도적인 일탈, 즉 등치적 리얼리티로부터의 일탈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면 무의미시는 명백하게 환상 충동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일탈을 통해 환상은 마음 속의 무엇이든 의미감 a sense of meaning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³⁰⁾ 환상의 표현인 무의미시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무의미시가 환상을 통해 찰진감이 아닌 의미감을 창출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무의미시의 의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논문의 관심 대상은 무의미시 그 자체이긴 하나, 김춘수 자신에 의해 제공된 무의미시론을 참조하여 무의미시의 의미 문제에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다음의 논의는 김춘수 자신이 무의미시의 조건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에 주목을 요한다.

대상이 없을 때 시는 의미를 잃게 된다. 독자가 의미를 따로 구성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시가 가진 의도와는 직접의 관계는 없다. 시의 실체가 언어와 이미지에 있는 이상 언어와 이미지는 더욱 순수한 것이 된다. (중략) 대상을 잃은 언어와 이미지는 대상을 잃음으로써 대상을 무화시키는 결과가 되고, 언어와 이미지는 대상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것이 된다.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언어와 이미지는 시인의 실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시를 쓰고 이미지가 시를 쓴다는 일이 이렇게 하여 가능해진다.³¹⁾

이 논의에서 특히 시전을 끄는 점은 ‘언어’와 ‘이미지’를 거듭 동궤에

29) Kathryn Hume, 한창엽 역(2000),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p.55.

30) Kathryn Hume, 위의 책, pp.55-56.

31) 김춘수, 앞의 글, p.372.

놓고 무의미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시에서 이미지는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에, 굳이 언어와 이미지를 구분하여 명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춘수가 굳이 언어와 이미지를 대별하여 사고한 것은 무의미시의 의미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시작 경로를 무의식적으로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이미지의 차원이 아닌 언어의 차원, 엄밀히 말하자면 언어 자체의 물질성을 전경화하는 차원에서 무의미시가 창작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구분인 것이다. 실제로 김춘수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논자들에 의해 김춘수의 무의미시는 둘 이상의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변별적으로 분석되었고, 이들의 분석틀은 대개 무의미시는 ‘심상형 무의미시’와 ‘리듬형 무의미시’로 양대별된다는 초기의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³²⁾ 따라서 이들 논의를 토대로 하여, 환상의 표현으로서의 무의미시를 이미지의 실현 및 언어의 물질성 실현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의미감 추구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절대적 이미지의 실현을 통한 환상의 공간 창출

사실 이미지는 김춘수의 무의미시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다. 김춘수는 그의 무의미시론에서 현대시의 유형을 ‘대상을 갖지 않는 서술적 이미지 중심의 시’와 ‘대상을 갖고 있는 서술적 이미지 중심의 시’, ‘대상을 가지고 있는 비유적 이미지의 시’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의 시를

32) 김두한(1991), 「김춘수 시 연구」, 효성여대 박사논문.

이밖에도 이승훈은 무의미시를 ‘서술적 이미지, 탈이미지, 통사 해체’의 세 유형으로 분석하였고, 최라영은 ‘상황의 무의미, 언어의 무의미, 범주적 이탈, 수수께끼’의 네 유형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런데 이승훈의 분석틀에서는 탈이미지 유형이 때로는 서술적 이미지와 걸쳐 있고, 때로는 통사 해체의 단계로 극단화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하기에 독립적 변별성을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라영의 분석틀에서는 언어의 무의미를 제외한 나머지 세 유형이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중심으로 무의미가 산출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이 역시 크게 두 범주로 수렴될 수 있는 유형 구분으로 보인다. 이승훈(2005), 「김춘수와 무의미시의 세 유형」, 『현대문학』 601호, 현대문학사 및 최라영, 앞의 논문 참조

‘무의미시’라고 명명한 바 있다.³³⁾ 이때 ‘서술적’이라는 술어는 ‘descriptive’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확히 말하면 ‘묘사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히 묘사적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대상의 유무에 따라 묘사의 차원이 달라지기에, 대상을 갖지 않는 묘사적 이미지는 ‘절대적 이미지’라는 술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의미시에서 구현되는 이미지는 관념의 수단이 되는 이미지(비유적 이미지)가 아닐 뿐 아니라,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 이미지 자체가 대상이 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가장 널리 알려진 무의미시인 「처용단장 1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눈보다도 먼저
겨울에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있던 자리에
군함이 한 척 닻을 내리고 있었다.
여름에 본 물새는
죽어 있었다.
물새는 죽은 다음에도 울고 있었다.
한결 어른이 된 소리로 울고 있었다.
눈보다도 먼저
겨울에 비가 오고 있었다.
바다는 가라앉고
바다가 없는 해안선을
한 사나이가 이리로 오고 있었다.
한쪽 손에 죽은 바다를 들고 있었다.

—「처용단장 1부-4」

이 시가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는 이유는 ‘있었다’라는 과거 시제를 통해 실제 사태의 이미지가 형상화되었으리라는 기대감을 주는 것과 달리 이미지의 대상을 실제 현실에서 찾기 힘들다는 점으로 인해 생기는 괴리

33) 김춘수, 앞의 글, p.365.

때문이다. 현실의 대상을 지시하는 일반적인 묘사적 이미지의 경우와는 달리 이 시에 실현된 이미지들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실재의 재현이 아닌 비현실의 재현, 부재의 재현을 통해 이 시는 환상적인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비현실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이와 같은 직접성과 구체성은 ‘일상적인 실재가 오성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실재를 거부하는’³⁴⁾ 직접성 추구의 미학적 경향과 관련이 있다. 직접성의 추구는 사물의 내밀한 영혼이나 감정과 일치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현상적 세계의 논리를 초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에서는 현실 논리에 의해 구속되는 의미가 발생하기 보다는, 새로운 리얼리티로서의 2차적 의미가 발생하게 된다. 환상 행위, 즉 수잔 아이삭의 어법을 빌자면 ‘phantasy’ 자체가 독자 반응의 직접성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는 절대시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것으로, 절대시의 대표적 논자인 벤은 새로운 의미체로서의 예술을 ‘새로운 현실’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처럼 무의미시나 절대시가 창출하는 새로운 현실이란 다름 아닌 환상 층동이 지향하고 펼쳐가는 새로운 시적 의미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 개입하는 욕망-환상을 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절대시, 믿음이 없는 시, 희망이 없는 시, 아무에게도 향하지 않는 시, 당신들이 매혹적으로 짜 맞추는 언어들로 이루어진 시, 그리고 이 관계를 한번 더 말하자면, 이러한 형식화 이면에서 오직 허무주의와 음란한 태도밖에는 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매혹스러움과 언어 이면에는 아무리 통찰력이 깊은 사람이라도 만족시키기 어려운 어둠과 존재의 심연이 여전히 충분히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 됩니다. 요컨대 모든 매혹적인 형식 속에는 격정과 자연, 그리고 비극적인 경험의 실체가 충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³⁵⁾

34) K. Harries, 오병남·최연희 역(1988),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p.157.

35) 이승욱(1999), 「‘무의미시’와 ‘절대시’에 대한 비교 고찰」, 『뫼히너와 현대문학』 13권 한국뫼히너학회, p.141에서 재인용.

절대적 이미지의 실현을 추구하는 일련의 무의미시 및 절대시가 신선감을 자아내고 때로는 당혹을 느낄 정도의 정서적 충격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시편들에 가로놓인 원초적 경험이 환상적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적 현실로 몸을 바꾸어 제시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의미시의 수용 과정에서 독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새로이 창출된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 현실 세계의 대상이 아닌 이미지 자체를 환상의 공간 내에서 직접 감수하는 것, 즉 독자 자신이 환상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독자는 이미지의 이면에 가로놓인 표현 주체의 욕망-환상을 재체험하게 되고, 지시적 의미가 아닌, 새로운 의미를 조우하게 된다.

(2) 언어의 물질성 실현을 통한 환상의 확대 재생산

문학 언어, 특히 시의 언어에서는 단어의 뜻 못지않게 소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뜻이라고 하는 지칭적 국면을 도외시키고 언어 조직이 성립되는 어렵다. 그럼에도 언어의 지칭적 국면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해서 시를 사물화하려는 시적 노력은 현대시의 기본 충동의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³⁶⁾ 김춘수의 무의미시 중 「처용단장 2부」의 시들은 특히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표들의 반복적 제시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일종의 환각적 경험을 하게 한다.

불러다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말더듬이 일자무식 사바다는 사바다,
 멕시코는 어디 있는가,

36) 유종호, 앞의 글, p.34.

사바다의 누이는 어디 있는가,
불리다오,
멕시코 옥수수는 어디 있는가.

—「처용단장 2부—5」

이 시에 대해 해석적 견지에서 사바다라는 인물의 정보를 찾아 시적 의미를 재구하려는 노력도 가능하다.³⁷⁾ 그러나 실제로 이 시에서 그와 같은 해석적 노력은 별 의의를 확보하기 어렵다. 가령 사바다나 멕시코 등 중심 시어로 보이는 시어들의 자리에 다른 유사 기표를 대체하여도 시가 경험하게 하는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이는 이들 기표들이 기의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해당 기표들의 변별적 자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청각적 효과 정도일 것이다. 이처럼 청각적 자질로 사물화된 기표들은 독자로 하여금 의미 차원의 상공에서 웅웅 울리는 일종의 청각적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 바, 이 환각의 경험은 동심원적 파장을 그리며 확장되는 성격이 있다.

이와는 달리 「처용단장 3부」의 시들은 언어의 물질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전경화하여 실험한 시들에 해당한다.

줄글로 띄어쓰기와 구두점을 무시하고 동사를 명사보다 앞에 놓고 객슨·폴룩을
앞질러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존·케이시를 앞질러 소리내지 않는 악기처럼 미국의
한병사가 갖다 준 내 쓸개 한 쪽 서럽고 도서럽던

서기 1945년 8월 15일

—「처용단장 3부—28」

이 시는 다른 무의미시들과는 달리 현실 지시 어사들이 수차례 등장한다. ‘객슨·폴룩’이나 ‘존·케이시’라는 인명이 그러하고, ‘서기 1945년 8월 15일’ 또한 명백히 역사적 현실을 지시하는 개념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들이 지시하는 의미는 시의 수용에 충분한 참조가 되어

37) 권혁웅, 앞의 글 참조

주지 못한다. 오히려 독자는 시의 문면에 명시된 대로 줄글로 찍어쓰기와 구두점을 무시한 표현들이 주는 낯선 상황에 숨 가쁘게 끌려들어가면서 동시에 호흡의 차단을 경험하게 된다. 기호에 관한 일련의 언급과 전위 예술가들에 대한 언급, 서러운 쓸개의 이미지, 시간의 표지들은 일정한 의미 연관 없이 돌연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내면적으로 소리를 실현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속도감은 순간 순간 차단되면서 기표의 물질성이 전경화된다. 이는 일종의 몽타주에 해당하는데, 몽타주에 관한 이저의 논의에 의하면 묘사가 불가능한 현실은 아주 기이한 모습들의 풍부한 형태들로 이미지를 오버랩함으로써 보인다.³⁸⁾ 묘사가 불가능한 현실의 몽타주 차원의 제시가 야기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 불안한 환상의 감각적 경험에 다름 아니다.

다음의 시는 한층 나아가 시의 언어를 음소 단위로 해체함으로써 기표의 물질성을 전경화하고 있다.

역사는

바람이 자는가 자는가 하더니

눈이 내린다 바보야

우찌살꼬 ㅂ ㅈ ㅂ ㅈ ㅈ

,

ㅎ ㅈ ㄴ ㅡ ㄹ ㅅ ㅈ ㅂ ㅈ ㅈ ㅡ ㅈ 한여름이다 ㅂ ㅈ ㅂ ㅈ ㅈ

—「처용단장 3부—39」中

길이상 전편 인용하지는 못하였으나 「처용단장 3부—39」의 핵심 시어 중 하나는 ‘역사’이다. 그리고 많은 논자들에 의해 「처용단장 3부」는 김춘수 개인의 역사 체험에 대한 피해의식이 배면에 각인되어 있는 시라고 논의되어 왔다. 물론 이와 같은 등치적 리얼리티의 차원에서 이 시를 해석하는 입장에 동의하는 바는 아니나, 투명하지 않은 발신자의 심리 내용이

38) Peter Bürger, 이광일 역(1986), 『아방가르드 예술이론』, 동원출판사, p.144.

인위적으로 조작된 기표에 의해 차단되고 해체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를 통해 독자가 경험하는 것은 프로이트 식의 왜곡된 ‘욕망-환상’의 구체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욕망-환상을 뒤틀고 은폐하는 기표의 조작 행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는 자의 고통을 환각적으로 재체험하는 과정에서 발화 주체의 욕망-환상은 독자의 내면에서 재생산되고 확대되는바, 기표-기표의 차원을 넘어서 시의 의미감은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환상이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고 무대화함으로써 욕망을 재생산하고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보는 지젝의 관점³⁹⁾을 참조할 때, 무의미시의 생산자에게 중요한 것이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그 욕망을 드러내고 무대화하는 행위이니만큼, 무의미시의 독자에게 중요한 것 역시 욕망의 실체를 규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극화되고 무대화된 욕망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환상 행위를 매개로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추구하는 무의미시는, 절대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환상 공간을 창출하거나, 언어의 물질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환상을 확대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의 의미감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습적 시 독법을 동원하여 시어 하나, 시구 하나의 내포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무의미시를 읽는 것은 환상이라는 무의미시의 의미 조건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무의미시의 독자는 그 자신이 욕망-환상의 주체, 환상 행위의 2차 주체가 되어 환상의 공간에서 낯선 이미지를 겪어 내거나, 극대화된 언어의 물질성을 직접적으로 감각함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웅웅거리며 확대재생산되는 욕망-환상을 경험하여야 할 것이다.

39) S. Zizek, 김소연·유재희 역(2002), 『뻔뻔하게 보기』, 인간사랑, p.24.

4. 결론—무의미시에 대한 국어교육적 접근

지금까지 환상이라는 개념을 매개로 무의미시가 의미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무의미시는 일상적·지시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거부하는 대신, 독자의 환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의미감을 지향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논문의 모두에서 제기한 의미의 문제는 조금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축자적으로 볼 때 무의미시는 의미를 거부하는 언어 행위에 해당하지만, 다른 차원의 의미화를 지향하는 언어 행위이기 에 그 자체로도 의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의미시가 거부하는 의미는 지시 관계의 질서에 종속된, 제한적 차원의 의미일 뿐이다. 오히려 무의미시는 일상 언어의 지시 관계, 라캉식으로 말하면 상징계의 질서 속에 놓인 의미를 거부하고 무의미를 지향하면서 대안적 세계, 이차 세계라는 새로운 의미역을 창출한다.

지금까지 국어교육에서 사고와 의미의 문제는 유명한 오그텐과 리차즈의 의미 삼각형 도식, 즉 symbol-reference-referent의 관계에 입각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무의미시는 referent의 존재와 무관하게 reference를 가지는 측면이 있고, 이는 지시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를 넘어 존재하는 새로운 의미역인 것이다. 이처럼 무의미시의 의미는 의미 삼각형 차원에서 발생하는 의미 관계를 넘어서는 이차적 의미를 지향하기에 국어교육에서 의미의 문제는 이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 지시대상이 부재하거나 모호하다고 해도 현실의 대상을 ‘지시하지 않는’ 의미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야말로 무의미시가 추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실의 지시 대상을 갖지 않는 의미는, 앞절에서 논의한 바대로 환상 행위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무의미시의 의미가 환상 행위를 매개로 추구된다는 점은 국어교육의 중핵적 요소인 ‘언어적 사고’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개념적, 언어적 성격을 갖

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어 활동과 관련된 사고는 인지 중심적 사고와 정의 중심적 사고가 모두 관련되는 것으로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중 정의 중심적 사고는 상상의 체험(virtual experience)을 통한 사고로 설명된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알기-파지기-느끼기-즐기기의 네 단계가 정의 중심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한, 정의 중심적 사고 역시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수렴적 파악에서 출발⁴⁰⁾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상을 매개로 하는 무의미시의 의미화 과정은 이와 같은 수렴적 사고로는 파악될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 언어의 지시 관계에 기초하는 구심적 의미화의 경우와는 달리 환상 행위를 매개로 추구되는 무의미시의 의미는 원심적으로 개방되고 확산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심적 과정이야말로 상상의 체험을 견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일 수 있다. 그러므로 무의미시의 환상성을 중심으로, 상상의 체험으로서의 정의 중심적 사고의 속성을 포괄하여 설명할 때, 국어 활동에 개입하는 언어적 사고의 전모가 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며, 언어적 사고 현상으로서 무의미시의 의미화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무의미시의 의미화 문제는 사실 국어교육 일반의 차원에서 보다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더 가치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문학적 수용과 생산의 차원에서 무의미시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문학 활동 주체의 경험역은 유의미하게 확장될 수 있다. 캐스린 흄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환상은 작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작가의 상상력에 목소리를 실어주며, 독자의 긴장을 증폭시키고 해방시키는 작용을 한다.⁴¹⁾

따라서 문학 생산 교육의 차원에서 무의미시를 자료로 할 때, 무의미시가 개진하는 상상 작용은 문학 생산 주체로 하여금 인간적·언어적 한계를 넘어 본질, 대상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언어의 불완전성을 자각한 주체에게 수반되게 마련인 존재론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말할 수 없는 것, 표

40) 이삼형 외, 앞의 책, p.272. 참조.

41) Kathryn Hume, 앞의 책, p.55.

현하기 힘든 것까지도 표현하도록 추동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서 나아가 무의미시를 경로로 창출되는 환상의 공간, 이차 세계는 그 자체로 문학적 창조의 세계로서 가치를 갖는다. 언어에 의한 세계의 건설은 문학이 지향하는 창조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⁴²⁾

또한 문학 수용 교육의 차원에서 무의미시가 교육적 대상이 될 경우, 독자는 무의미시 수용 과정에서 새로운 욕망-환상을 가진 한 인간을 만나고, 그 욕망의 극화에 동참함으로써 실존적 자극과 자유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무의미시가 제공하는 자유가 경험 세계의 폭을 넓혀 주고, 다양한 경험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김춘수에 의해서도 이미 강조된 바 있다.^{43)*}

42)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p.144.

43) 김춘수, 위의 글, p.373.

* 본 논문은 2008. 6. 30. 투고되었으며, 2008. 7. 4. 심사가 시작되어 2008. 7.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 수(2001), 「창조적인 시 읽기의 즐거움」, 『현대시학』 383호, 현대시학사.
- 구모룡(2006), 「한 완전주의자의 시적 모험－김춘수론」, 『시의 옹호』, 천년의시작.
- 권혁웅(2005), 「무의미시는 무의미한 시가 아니다」, 『문예중앙』 2005 여름.
- 김길웅(2002), 「저항과 변혁의 문화 운동, 다다: ‘의미’와 ‘무의미’의 관계를 중심으로」, 『독어교육』 24집,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김두환(1991), 「김춘수 시 연구」, 효성여대 박사논문.
- 김춘수(1982), 『김춘수전집1』, 문장사.
- 김춘수(1982), 「의미와 무의미」, 『김춘수전집2』, 문장사.
- 김춘수(1982), 『처용 이후』, 민음사.
- 김 현(1993), 『문학과 유토피아』, 문학과지성사.
- 문선영(2003), 『현대시와 문화의식』, 청동거울.
- 유종호(2005), 「이데아의 음악과 이미지의 음악」, 『현대문학』 601호, 현대문학사.
- 윤지영(2001), 「‘환상적인 시’와 ‘환상시’의 가능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편, 『한국문학과 환상성』, 예림기획.
- 이삼형 외(2007),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 이승욱(1999), 「‘무의미시’와 ‘절대시’에 대한 비교 고찰」, 『뫼히너와 현대문학』 13권, 한국뫼히너학회.
- 이승훈(2000), 『한국 모더니즘 시사』, 문예출판사.
- 이승훈(2005), 「김춘수와 무의미시의 세 유형」, 『현대문학』 601호, 현대문학사.
- 이창민(2008), 『현대시와 판타지』, 고려대학교출판부.
- 임진수(2005), 『환상의 정신분석』, 현대문학.
- 장석주(2005), 「언론의 한계와 파탄」, 『풍경의 탄생』, 인디북.
- 최기숙(2007),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 최라영(2004), 「김춘수의 무의미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최라영(2004), 「문학적 무의미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어문학』 86호, 한국어문학회.
- Bürger, Peter, 이광일 역(1986), 『아방가르드 예술이론』, 동환출판사.
- Harries, K., 오병남·최연희 역(1988), 『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 서광사.
- Jackson, Rosemary, 서강여성문학회 옮김(2001), 『환상성－전복의 문학』, 문학동네.
- Langer, Susanne, 박용숙 역(1984), 『예술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 Todorov, Tzvetan, 이기우 역(2005), 『덧없는 행복 / 환상문학 서설』, 한국문화사.
- Vygotsky, L.S., 신현정 역(1985), 『사고와 언어』, 성원사.
- Zizek, S., 김소연·유재희 역(2002), 『빼딱하게 보기』, 인간사랑.

<초록>

국어교육에서 무의미시의 문제

김남희

이 논문은 그 동안 국어교육의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무의미시를 대상으로, 무의미시가 국어교육 및 문학교육에서 갖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무의미시가 의미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환상’을 매개로 규명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국어교육에서 사고와 의미의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다.

무의미시의 언어는 현실의 지시 대상(referent)을 갖는 대신 환상의 영역에서 새로운 의미감(a sense of meaning)을 창출하는 언어이기에, 지시 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의미 개념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환상을 매개로 하는 무의미시의 의미화 과정은 언어적 사고의 기본 양상인 수렴적 사고로는 파악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어 활동에 개입하는 언어적 사고의 전모는 환상의 영역을 포괄하여 구조화될 필요가 있으며, 언어적 사고 현상으로서 무의미시의 의미화 역시 그에 입각하여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환상을 텍스트 조건으로 하는 무의미시의 가치는 문학교육의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문학 생산 교육과 관련하여, 무의미시가 보여주는 상상 작용은 문학 생산 주체로 하여금 인간적, 언어적 한계를 넘어 대상의 본질에 도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언어 생산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문학 수용 교육과 관련하여, 무의미시가 제공하는 자유는 독자로 하여금 경험 세계의 폭을 넓혀줄 뿐 아니라, 시 읽기 과정에서 독자 자신의 능동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다.

【핵심어】 김춘수, 환상, 무의미시, 국어교육, 문학교육

<Abstract>

The Issues of the Nonsense Poetry in Korean Education

Kim, Nam-hee

This paper was intended to elucidate the meaning and position of nonsense poetry in literary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 which had not been a main issue all the while. Firstly, I tried to show new vision for subjects of the verbal thought and meaning in Korean education by defining the realization and pursuing process of nonsense poetry for meaning as 'fantasy'.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e language of nonsense poetry, because it produces the a sense of meaning in the field of fantasy instead of explaining its meaning by real referent. And we are not able to understand a series of processes which provide meaning to nonsense poetry with the convergent thought which has been fundamental aspect of verbal thou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 concrete form of verbal thought which involves Korean education by including the field of fantasy, and the signifying process of nonsense poetry which is a thought phenomenon should be explained by this concept.

The value of nonsense poetry which needs fantasy as a text condition could be positioned in the literary education level. Regarding the education of literary production, the function of fantasy which is revealed in nonsense poetry can play a language producing role for reaching the nature of object that exceeds the personal and linguistic limitation. And it could be concluded that nonsense poetry provides much degree of freedom to the readers in the education of literary reception, expands the range of experience, and contributes to maximize the activity of the readers in poetry reading.

[Key words] Kim, Chun-su, Fantasy, Nonsense Poetry, Korean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토론문】

“국어교육에서 무의미시의 문제”에 대한 토론문

문선영(부산대학교)

선생님의 논문은 무의미시가 갖는 국어교육적·문학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밝혀 보고자 한 측면에서, 특히 문학교육의 활성화와 심화 과정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측면에서 잘 읽었습니다. 사고력의 신장과 언어적 사고의 범주가 국어교육의 요체임을 주지할 때 그러한 맥락에서 무의미시의 교육적 적용은 많은 시사점을 가지리라 합니다.

모든 훌륭한 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이러한 무의미성을 지향했고, 이러한 시적 특성을 우리 근대시의 역사 속에서 최초로 논리화하고 실천했다는 점에 김춘수의 시사적 가치가 놓입니다. 그의 시세계는 김수영의 그것과 대립적인 관계에서 이해되며, 1970년대의 우리 시, 나아가 1980년대의 우리 시를 발전시킨 숨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사적 맥락에서 무의미시를 문학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선생님의 논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논의가 앞으로 구체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문학교육에서 상정하시는 무의미시에서의 ‘의미’ 문제입니다. 선생님께서 글의 모두에서 “무의미시는 언어 현상이면서도 사고, 혹은 의미 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 ‘언어적 사고’의 범주에서 고려될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의미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하셨는데, 무의미시가 언어적 사고의 범주에서 그리고 의미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겠

는지요.

이상의 질문은 선생님께서 논의를 진행시키실 때 다소 용어의 혼란을 빚으신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무의미사에서 무의미라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일정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상에 구속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의미, 그것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과의 거리가 상실될 때는 이미지가 대상이 되고 그 때 나타나는 시가 무의미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이 시적 인식이든 개념적 인식이든, 어떤 경우이나 대상을 언어로 지시하는 행위이며, 대상이 그렇게 언어로 지시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꽃이라는 ‘언어’는 꽃이라는 ‘대상’을 지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으로부터의 해방이 무의미를 낳는다는 것은 이러한 문맥에서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적 사고’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3장의 <환상 행위로서의 무의미시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김춘수 시인이 “‘언어’와 ‘이미지’를 동궐에 놓고 있다”고 보셨는데, 이때 언어가 아니라 ‘대상을 잃은 언어’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에서 이미지는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에, 굳이 언어와 이미지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김춘수가 굳이 언어와 이미지를 대별하여 사고한 것은 무의미시의 의미화 방식에 대한 자신의 시작 경로를 무의식적으로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신 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이미지가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일반적인 논리입니다. 김춘수가 이미지를 논했을 때는 대상과의 거리가 상실될 때 이미지가 대상이 된다고 본 것이고 그 때 나타나는 시가 무의미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미는 기호론이나 의미론의 용어와는 다르게 사용됩니다. 무의미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지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 곧 판단중지의 사물인 셈입니다. 현실을 무화시킨 절대적 심상의 세계인 셈이지요.

2.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과 욕망의 관계를 중심으로 무의미시가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 선생님의 발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 무의미시를 문학교육에 적용시킬 때 ‘환상’의 범주 설정도 명확하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의미시가 드러내는 ‘의미의 방식’이 가능하겠는지요?

물론, 환상시 논의를 중심으로 무의미시의 시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 선생님의 발상이 참신하고 또 앞으로 무의미시 논의의 확산에 기여하리라 합니다. 무의미시가 일상적·지시적 맥락에서의 의미를 거부하는 대신, 독자의 환상 행위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의미감을 지향한다고 보신 의견에 깊은 공감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서 “무의미시는 의미를 거부하는 언어 행위에 해당하지만, 다른 차원의 의미화를 지향하는 언어 행위이기에 그 자체로도 의미 현상에 해당한다”고 보셨는데, 용어 혼란을 막기 위해 정리 차원에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 설명이 된다면, 무의미시에서 환상을 매개로 한 ‘언어적 사고 현상으로서 무의미시의 의미화’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 마지막으로, 국어교육, 특히 문학교육에서 무의미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 교육마저도 시험 위주의 수동적인 교육이 실행되는 현 상황에서 무의미시의 교육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보는지요.

선생님께서도 환상의 개념을 ‘주체가 등장하는 상상적 각본’이라는 정신분석학적 차원의 개념을 차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무리 끝 부분에서 “무의미시가 개진하는 상상 작용은 문학 생산 주체로 하여금 인간적·언어적 한계를 넘어 본질, 대상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언어의 불완전성을 자각한 주체에게 수분되게 수반되게 마련인 존재론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말할 수 없는 것, 표현하기 힘든 것까지도 표현하도록 추동하는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논의에 깊이 공감하고 또 이와 같은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생님의 취지가 적용 가능한 곳은 일선 학교가 아니라 영재교육의 카테고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어교육 또

는 문학교육이라고 하셨을 때 그 가능성의 범주를 어느 정도까지 가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들에게 좋은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을 판별하여 교육할 때 무의미시는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의 질문들은 선생님의 논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